

주목! 이사람

구충곤 화순군수는 10일 오후 1시 50분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10일 오전 9시 45분 보건소에서 제가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1일 오후 2시 배월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교육에 참석한다.

위삼섭 장흥부군수는 10일 오후 2시 부군수실에서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영화 '재심' 무료 상영 오늘 오후 담양문화회관

담양군은 10일 오후 7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0년 동안 살인자로 살아온 남자를 위해 변호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재심'을 무료 상영한다. 17년 전 전라도에서 발생한 실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재심'은 돈 없고 속절없는 배랑 끝 변호사와 10년을 살인자로 살아온 청년 등 두 남자가 진실을 찾는 사투를 담았다. /담양=장동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나주 010-3648-2222 010-3713-7458
합평 010-3773-2522
영광 010-8666-2882
무안 010-3621-8989
화순 010-3666-5888
장성 010-3666-1300
담양 010-4154-8277
장흥 010-3613-6114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는 관람객 30만593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19회 담양대나무축제가 열린 죽녹원에는 대나무의 정취를 즐기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나비축제·대나무축제 흥행 대박

제19회 함평나비대축제와 제19회 담양대나무축제가 각각 관람객 30만명과 49만명을 돌파하며 '대박축제'로 막을 내렸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열린 함평나비대축제 관람객은 유료 20만2,723명을 포함해 총 30만593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다. 올해 유료관람객은 작년(20만1,000명)보다 1,000여명 많았다. 입장료 수입은 9억8,265만원으로 작년(9억8,000만원)보다 7,000여만원 많았고 2010년 이후 최고다. 올해 축제 기간 하루 평균 3만명이 함평을 찾을 정도로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었다. 축제 기간 축제장 주변에서의 농·특산물 판매액은 10억9,000만원에 달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2010년 이전에는 개최 기간이 보통가량 때서 총 관람객 수가 30만명을 넘지 못했다"며 "2010년 이후 10일 가량 개최 기간에 30만명을 돌파하고 수익이 10억원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함평...30만명 2010년 이후 최다 수익도 10억
함평엑스포공원 전시관 이달까지 유료 개방
담양...49만명 대나무 환경적 가치 집중 의미
안병호 함평군수는 "민선 5·6기 축제 중 가장 많은 관람객 수와 가장 많은 입장료 수입을 기록해 2년 연속 흑자를 내는 등 알찬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은 나비축제가 20회를 맞는 뜻 깊은 해인 만큼 내실을 갖춰 축제와 지역경제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을 이달 말까지 유료로 운영한다. 각종 부스는 철거됐지만 나비생태관에는 등 각종 전시관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입장료는 축제 때보다는 저렴한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3,500원, 어린이·만 65세이상 2,500원, 유치원생 1,500원이다. 지난 2~7일 죽녹원과 관광제림 전담도립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담양대나무축제도 관람객 48만8,000여명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수축제를 재확인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풍성한 체험거리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대나무 카누체험, 대나무 뱃속 만들기, 대통도자기 만들기, 대나무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돼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인문학부어인 '담양 별빛여행'에는 인문학 명사들이 동행해 투어 참여자들의 잔사가 쏟아졌다. 레이저 효과를 통해 환상의 숲으로 재탄생한 관람 제곱에는 늦은 시간까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대나무 환경 퍼레이드'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겼다. 12개 읍면의 주민들이 담양고~중앙로~신남정사거리~축제장 구간의 길을 열면, 관광객들이 뒤따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나무 문화산업전, 죽간만들기, 뽕만들기, 스마트디스플레이, 대나무어린이를이더, 대나무골 정정 생태관도 축제의 불거리를 풍부하게 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7일 닫는 마당에서는 2018년 담양 지명 천년의 해를 기념, 광광술대 공연단과 군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승천하는 '담양천년 소망대' 주위로 원을 그리며 액운을 물리치고 '운수대통'을 기원했다. 담양군과 새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는 "제19회 담양대나무축제는 '푸른 대숲, 숨 쉬는 자연'을 주제로 대나무의 다양한 가치 중 환경적 가치에 집중해 개최된 친환경 녹색축제였다"며 "이번 축제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환경문제가 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수종인 '대나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담양=장동원 기자

무안 기능성쌀 흡쇼핑 판매 추진

12일 농협 공영흡쇼핑 품평회 참여 가공식품 개발

무안군이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농협 공영흡쇼핑 판매를 위한 품평회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되는 품평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무안군 청계농공단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썬미지푸드다. 전복 세절면기를 비롯해 전복분말 제조법, 기능성 라면 제조법, 기능성 쌀 제조법 등 다수의 국내외 특

건강을 위한 다기능 고기능성 맞춤형 생산을 주, 최상의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고미선 썬미지푸드 대표는 "이번 공영 흡쇼핑 방송 판매 추진을 계기로 현대 감각에 맞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간편성, 편리성, 영양적인 면을 두루 고려한 기능성 제품을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



체계를 구축, 우리 쌀 소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흥 가정의 달 나눔 릴레이 '훈훈'

장흥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엘디마트는 어린이날인 5일 지역 어린이와 다문화가족에게 5,5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2,000개를 전달했다. 이날 마트 앞 광장은 확용품, 장난감, 과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를 받

금을 기탁해 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 저소득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김안과위원의 김용기 원장이 3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김용기 원장은 지난 2015년 전남 29호 아너소사이터 회원으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인계유성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병원 수익금의 일부를 쪼개 이웃을 돕고 있다. 김 대표는 10년이 넘게 이들과 성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숲 태교 교실

장흥군은 10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숲 태교 교실을 운영한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숲 태교 교실은 숲 속 명상 및 요가, 아로마 테라피, 아기 손수건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숲 태교는 숲에서 발산하는 피톤치드와 자연의 소리 등을 통해 엄마와 태아가 교감하는 것을 돕는 정서·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수강대상은 임신 4주에서 34주까지의 임신부다. 숲 태교는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해주고, 임신부의 모성 정체성을 높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특히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를 낮추고, 무력감과 공격성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임신부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숲 태교 교실 참가 등 문의사항은 장흥군보건소 모자보건실(061-860-0546)로 하면 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청소년수련관에서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엄마와 케이크 만들어요"

드림스타트 아동·부모 80명 케이크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주시 드림스타트가 최근 청소년수련관에서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체험은 파파마켓 나주점과 파파마켓 호남본부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엄마와 함께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또 한 어머니는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드림스타트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파마켓 나주점 서경인 대표는 "지역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후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나주시 드림스타트는 파파마켓 나주점과 협약 체결,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메달 케이크를 후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케이크를 전달하고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방식의 후원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하는 각종 체험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Advertisement for ENG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a woman painting a wall and two buckets of 'ENG 방수' product. Text includes '방수! 직접 시공하세요' (Waterproofing! Do it yourself),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No technical skills needed, anyone can apply with a brush or roller!), and a list of services like exterior walls, roofs, and floors. Contact info: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 367-7755.